

전도자 예레미야의 한과 눈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1-3, 로마서 9:1-3

정윤돈 목사님

* **렘33:1-3**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롬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민족과 교회와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입고 어렵고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현장에서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WRC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구원을 넘어 237, 5천 종족과 관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이번 집회도 단순한 모임으로 끝난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한적, 선택적, 원니스 집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게 축복과 응답으로 나아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다. 많은 분들이 WRC를 갈까말까 고민한다. 그 안에서 받을 응답의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현장을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미디어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미주국과 홍콩을 가는데 아무도 운동하는 건 막지 않더라. 제가 운동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작은 것이지만 저는 이걸 전도와 선교에 연관짓는다. 우리는 불신자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응답받은 것, 전도한 현장을 포럼해라. 이번 WRC에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쉽게 잊어버리는데, 저는 3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해야겠다. 여러분은 빛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 로마시대의 마가다라방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했다.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상징적으로 알았다. 오직 복음, 왕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문이 열린다. 모든 게 전도, 선교와 다 상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24해야 한다. 300%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의 전도 문도 다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예배가 의미가 있다. 록펠러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인지 기도하면서 예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전하는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이유가 없다. 메시지를 적용할 이유도

없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무슨 세계복음화냐'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능력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된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가진 한과 눈물이다.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신다. 일본에서 응답받으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왕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더라. 왕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다. 그리스도께 끊어진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다. 저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다. 이게 정말 민족과 나라와 후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한을 가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 모든 생각과 호흡을 24기도로 바꿔라.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나를 살려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힘이 복음과 왕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과거에 메이지 마다. 저는 고아들과 살았다. 고아들은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다 밝고 우울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어둡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 음식을 씹어 먹는 것만 해도 감사거리다. 지금 사람들은 불만, 불평,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행복하지가 않다. 지금 감사해야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은 민족복음화를 위한 한을 가진 전도자들이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 진흙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정도 그릇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노예되고 포로되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없다.

1.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때부터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예언활동을 하였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후 다니엘과 바벨론 램판트들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기도와 한을 붙잡고 포로생활에서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 역사가 제대로 보이게 된다.

(1)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100년 전인 BC.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다. 우리로 치면 북한이 100년 전에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얼마나 한스럽겠나. 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유다도 위태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 요시아 왕의 즉위 13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까지 사역을 하였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하고 있다. 요시아는 경건한 왕이었고 주전 608년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기간에 율법이 발견되었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었으나 불과 석 달간 다스렸을 뿐이었으므로 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여호야김 왕은 불경건한 왕으로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고,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것 같이 심지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문서를 불태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으며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초래케 한 장본인이었다.

(2)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죄에 빠지고, 전쟁을 치르며,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살았으나 이 모든 일을 거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유대 민족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고 재앙과 전쟁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만약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다.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위해 우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조용히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 빛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이 망대, 등대, 빛이 되어야 한다. 100%전문성, 100%현장성, 100%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을 발견하고 100년, 1000년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한이 되시기를 바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족복음화와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을 가지고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전도자였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한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맨날 핸드폰만 보면서 예배에는 집중 못하고 조는데 거기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다 가고 있다. 눈물이 나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2.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못했지만 오직 절대 순종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예레미야 1장 6절에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왕 앞에 가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2)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주권을 인정하였다. 4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이 백성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포로와 노예와 속국으로 끌려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왕들은 한결같이 불신앙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놓고서 이게 뭐냐고 묻는 모습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완전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성도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전도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이 땅 어떤 것에도 사탄이 역사한다. 이 땅에서는 문제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건 왜 이리저, 저건 왜 저러지’ 할 필요가 없다. 똥통에 빠지면 뭐든 다 똑같다. 똥통에 빠지면 일단 빠져나와야 한다.

(3) 당시 남유다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한 명의 의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겠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열 명을 요구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명을 요구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참사랑교회에 의인 한 명이 필요하다. 3기업과 300영접 응답을 한 사람만 먼저 받으면 된다.

(4)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과 소망과 문제를 눈물의 기도로 바꾸어야 하겠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건 비밀이다. 그래서 남에게 말을 못 한다. 남에게 말하기 힘들고 표현하기 힘든 게 진짜 응답이다. 진짜 응답은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힘들다. 진짜 응답은 심지어 본인도 모른다. 무엇인가 응답받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생각할 수도 있다.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는데 요셉은 그게 응답이었다. 그게 언약이고 비밀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언약과 약속이 있

어야 한다. 사람 앞에서는 미친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는다. 그 비밀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중에 그 응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 그게 영적인 진짜 믿음이다. 중직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5)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방법은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났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라고 말한다. 다윗의 후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역사학자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1/3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어설프게 믿는데도 세계를 장악했다. 앞으로 유대인도 살리고 3단체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준비하라. 국가대표, 교수, 대통령이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먼저 그리스도로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으로, 2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통치자 그리스도’로, 23장 4절에서는 ‘목자’로, 29장 11절은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로, 33장 6절에서는 ‘치료자’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로, 31장 3절은 ‘사랑의 그리스도’로, 30장 9절에 보면 ‘다윗 같은 왕’ 그리스도로, 50장 34절에 보면 ‘구속자’ 그리스도로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 참된 생수가 있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그건 다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목마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제가 이번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길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수가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다. 전도자 예레미야와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정한 한과 눈물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망 받고 저주받을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전도자로 어린 나이에 부름받을 때 연약해 눈물까지 흘렸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절대불가능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역사가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과 기문과 교회와 민족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